

이야기 7 : 부활

주제말씀
[요한복음 11:25-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졌어요.

한편 로마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로마 병사들을 시켜 돌무리로 막은 무덤을 밤새도록 굳게 지켰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을 모신 무덤을 찾아 갔어요.

여인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료와 향유가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무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자리에 흰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것을 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달려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었어요.

여인들은 너무 반가워서 쫓아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 날 저녁,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올까 두려워 문을 단단히 걸어 놓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제자들은 유령을 본 것처럼 두려움에 떨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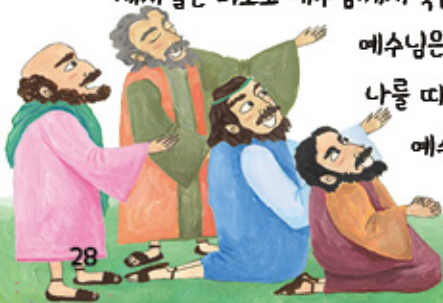
“어찌하여 그렇게 놀라느냐? 너희는 이렇게 나를 보면서도 나의 부활을 의심하느냐? 손을 내밀어 내 몸을 만져 보아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쫓아 엎드려 인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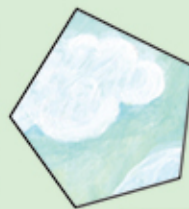
나를 따르는 새 제자들을 모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 위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활동 1.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옆에 퍼즐 조각을 잘라 알맞은 곳에 붙여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오각형



정사각형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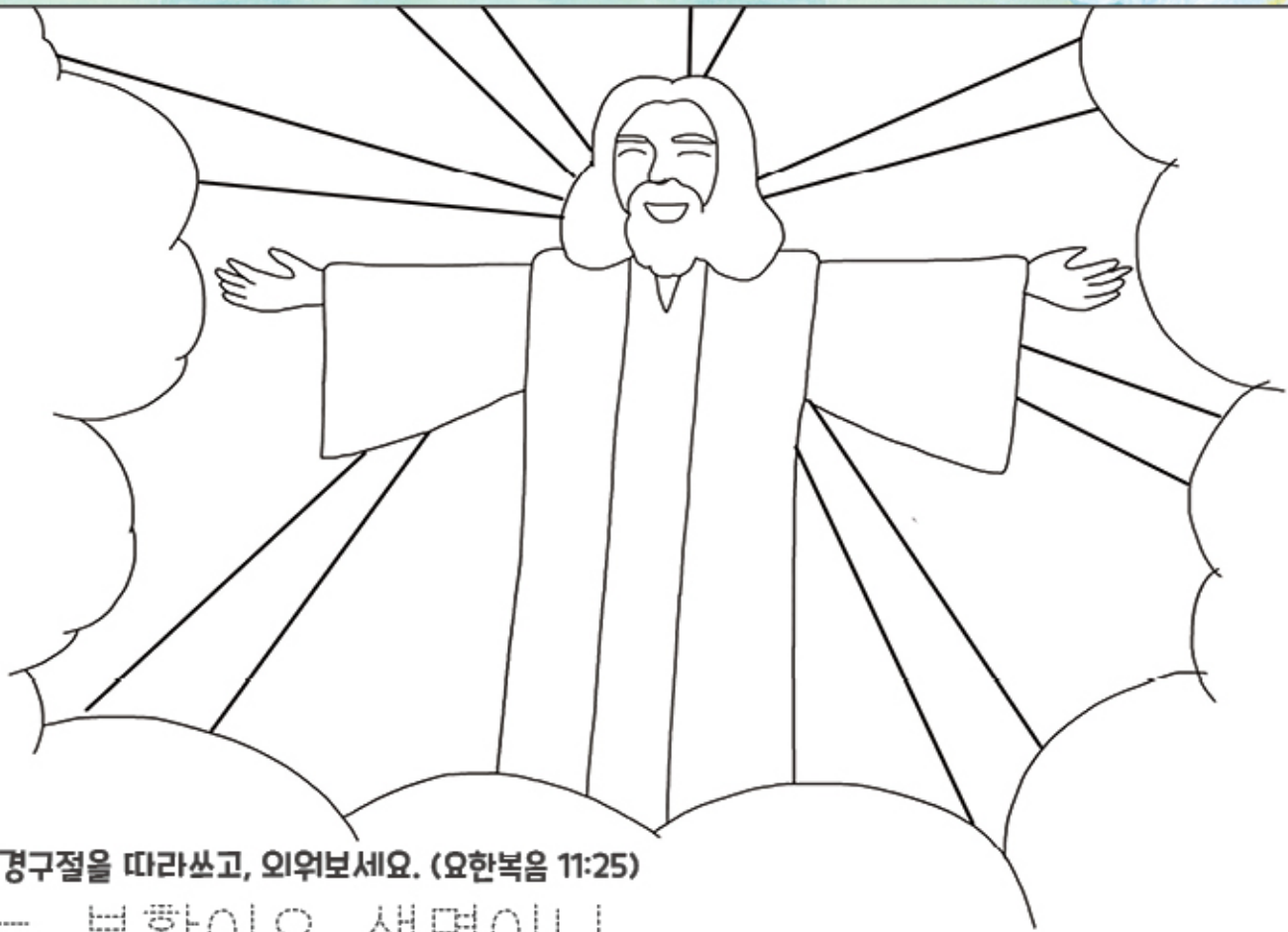
삼각형



직사각형

활동 2.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외워보세요. (요한복음 11:2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